

거문고와 琴譜

황준연

서울대 교수·국악과

조선중기 사람 染德壽는 거문고에 능하였는데, 임진왜란을 피하여 남원에 가게 되었다. 그때 당시 임실현감이던 金斗南은 그에게 거문고 악보를 하나 만들기를 권하였고, 그렇게 하여 생긴 악보가 현전하는 가장 중요한 琴譜 중의 하나인 「染琴新譜」이다. 그리고 이 고악보처럼 오늘날 귀중한 한국음악사 연구의 자료로 쓰이는 또 다른 금보도 100여종이나 전해 내려온다.

서가에 가지런히 쌓인 수많은 서책, 우아한 자태의 蘭 한 그루, 어느때고 주인의 손길이 와닿기를 기다리는듯 세워져 있던 거문고, 수반에 가꾸어 놓은 산수경석, 이 모든것이 蘭香이 그윽한 옛 선비의 사랑방 풍경이었다. 옛 선비에게는 스스로 거문고를 타는 일이 詩書畫와 더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교양이자 풍류였기에 고문고 한 대와 琴譜 한 권을 늘 책상머리에 두었던 것이다. 책을 읽다가 (男兒須讀五車書라던가) 문득 거문고를 끌어당기어 「靈山會相」이나 「數大葉」의 유장한 가락을 타는 일은 아마도 옛 선비의 으뜸가는 즐거움이었으리라.

사실 옛 선비들에게 거문고를 타는 것은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 책에서 읽은 생소한 지식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 높은 사고의 영역에서 영글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거문고가 쓰였다. 지식의 습득은 책에서, 깨달음은 거문고와 함께 하였는지도 모른다.

거문고는 술대로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 술대란 것은 글씨를 쓰는 붓대의 그것과 모양이 같다. 그래서일까, 거문고의 현을 튕길 때 나는 음향을 눈감고 듣노라면 書道에서의 힘차고 기운생동하는 일필휘지가 느껴진다.

옛 선비의 사랑방에 놓여있던 琴譜는 바로 책과 거문고, 더 나아가서 학문과 예술을 잇는 매개물이었다. 옛 선비들은 스승의 遺音을 琴譜로 기록하기도 하였고, 또한 남의 금보를 빌려서 베껴 적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연히 금보는 선비의 가장 아끼는 애장본이었고, 그 후손에게는 家寶처럼 귀하게 여겨져서 전승되었다.

흔히 국악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국악이론을 다룬 책이나 국악기나 국악곡을 설명한 것부터 찾게 된다. 그러나 음악의 연구나 음악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라면, 음악 실체를 기록한 악보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음악에 관한 이론서나 해설서는 어쩌면 배경설명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악곡을 기록한 악보가 음악 그 자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음악은 무형의 시간예술이지만 선비에게는 금보 속에 늘 살아있는 악곡들이 있었다. 이렇듯이 옛 선비들에게는 거문고와 금보가 있었지만, 오늘날 학자의 서재에는 오디오 機器가 자리해 있다. 더욱이 CD나 LD의 대중화에 힘입어서 책을 읽는 공간이 곧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된다. 이제는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감상 전문가도 무척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음악을 가장 사랑하고 깊게 아는것은 음악감상을 통하기보다는 음악을 직접 연주해 보는 것일 것이다. 지나친 비유일지 모르나, 어찌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옛 선비들은 능숙하지는 않으나 때로 익히고 직접 타는 거문고로 음악적 체험을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활자 매체의 발달로 우리가 스스로 악보를 그릴 필요는 없다. 거리의 책방에 흐드러지게 나와 있는 악보를 구하고, 먼지않은 낡은 거문고라도 중고시장에서 구하여, 이윽고 거문고를 직접 타보는 일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리라.

예전의 양덕수가 난리의 한복판에서도 금보를 만들고 거문고를 타야만 했던 것은 거문고 음악의 체험이 옛 선비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거문고를 타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네 서가에도 거문고 악보 한권쯤은 꽂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표지 2 실증으로 객관화한 항일무장투쟁의 실체
「한국광복군연구」 펴낸 한시준 교수

집중취재 4 갈수록 기발해지는 책광고 천태만상
포스터 부착서 샌드위치맨 동원까지

연재기획 6 마음이 편한 삶을 찾아가는 길 — 이중한
오늘의 삶을 돕는 지금 이곳에서의 책임기 ㉓

서평 8 이두호 외 「지구촌 환경재난」 — 김훈기
폴 데이비스 「초함」 — 이은경

9 김 리출 외 「현대사회와 광고」 — 정만수

10 미셸 바렛 외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 함인희

서성록 「한국의 현대미술」 — 유재길

11 마샬 버만 「현대성의 경험」 — 박지용

12 오생근 「현실의 논리와 비평」 — 김경수

하창수 「수선화를 꺾다」 — 김경수

확대서평 13 전공학자들이 제시한 학문의 자기소개 — 이기상
소광희 외 지음 「현대의 학문체계」

리뷰 14 책으로 밝히는 탐라섬 4월의 비극
「제주 4·3사건」 관련도서 어떤 것들 나와 있나

출판화제 16 장정에 이어 본문편집도 펜시화 추세
편지 달력 등 이용한 독특한 책들 잇달아 선보여

화제의 책 17 신구미디어 펴낸 「21세기 백과」

이 책 그 사람 18 「독신, 그 무한한 자유」 펴낸 김애순씨

「붉은 기호등」 펴낸 김요일씨

19 「쉬는 시간에 읽는 수학공트」 낸 육인선씨

「웃과 그들」 펴낸 김유경씨

시론 20 영화와 영화소설 동시개봉, 그 번안과 각색과 창작
영화홍보 일환으로 시작돼 이젠 원작없는 소설까지

초대석 21 지친 영혼 달래는 명상도서 출판의 대표주자
나쁜 지식 버리라는 '반역의 책'들 펴내는 정신세계사

해외출판 22 「직원재교육」으로 출판사 경쟁력 키운다 — 유은영
영국 유명 출판사들의 사내 교육 프로그램

세계의 책 24 상식의 신화 깨뜨리는 새로운 과학사 — 배병삼
피터 보울러 지음 「노턴 환경 과학사」 외

26 화제의 신간

28 신간안내

36 200자 안내

38 신간목록

47 출판계 뉴스

48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홍진